

KOSDAQ | 자본재

코원테크 (282880)

이차전지 자동화 장비사에서 AMR 기업으로 발돋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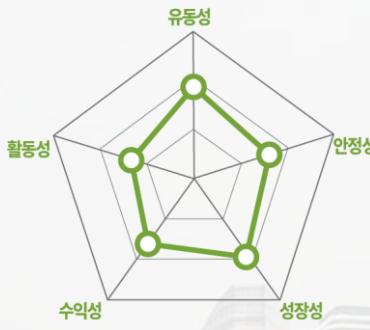
체크포인트

- 코원테크는 기존 제조업 자동화 솔루션 전문기업에서 AMR(자동주행 이동 로봇)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하며 물류 로봇 분야의 Fast Mover로 도약하고 있는 기업. 자동화 기술을 기반으로 高정밀 Direct Docking(직접 도킹), Fusion SLAM(융합 위치추정 및 지도작성)을 적용한 차별화된 AMR 솔루션을 개발하여 제조업 물류 로봇 시장을 선점하고 있음.
- 주력 제품이었던 2차전지 공정 자동화 시스템에서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체 SLAM 기술과 RCS(로봇 컨트롤 시스템)를 보유한 AMR 전문 기업으로 진화함. 2차전지 전극 양산라인 AGV(무인 운반차) 납품을 통해 물류 자동화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한 후, 보다 지능적이고 유연한 자동주행 AMR 개발 및 본격 상용화에 성공하며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AMR 사업을 단순한 물류 자동화를 넘어 스마트팩토리 토탈 솔루션의 핵심 축으로 발전시키며, 향후 Mobile Manipulator(이동형 로봇팔), 협동 로봇, OHMS(고공 물류 자동화 시스템) 등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해 로보틱스 전문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 글로벌 물류 로봇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2차전지, 반도체, 자동차 등 High-Tech 산업 전반으로 AMR 공급을 확대하며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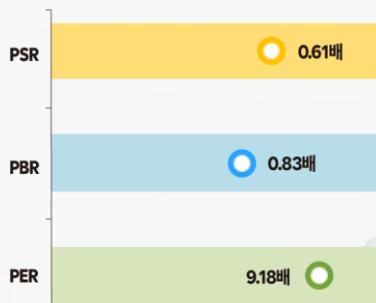
주가 및 주요이벤트



재무지표



밸류에이션 지표



주: PSR, PER은 2024년 기준, PBR은 4Q24 기준, Fnguide WICS 분류 상 산업재산업 내 등급화



코원테크 (282880)

KOSDAQ

자본재

Analyst 김경민, CFA (Chartered Financial Analyst) clairekmkim@kirs.or.kr

RA 권지승 rnjswltd32@kirs.or.kr

26년 동안의 장비 제조 노하우를 기반으로 AMR 사업 전환

코원테크는 1998년 설립 이후 26년간 2차전지 등 제조업 분야의 자동화 장비 공급사로 성장해 왔으나, 최근 물류 로봇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AMR(자동주행 이동 로봇) 중심의 사업 구조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기존 배터리 장비 제조에서 축적한 정밀 제어 기술과 시스템 통합 노하우를 AMR 개발에 접목하여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했으며, 2020년부터 본격적인 물류 로봇 사업 진출을 시작함. 형가리, 미국, 캐나다 등 해외법인 설립을 통해 글로벌 AMR 시장 공략을 위한 사업 기반도 동시에 구축함.

다양한 제조업을 대상으로 AMR 사업의 급성장 성과 달성

2차전지·반도체·자동차 등 다양한 제조업 분야를 대상으로 AMR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물류 로봇 매출이 2020년 25억 원에서 2024년 319억 원으로 급증하며 연 평균 89.3%라는 시장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성장률을 기록함. 기본형 AMR부터 스택 팔레트형(화물 적재용), 클린룸용, 모바일 매니퓰레이터까지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구축하여 각 산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음.

로보틱스 종합 기업으로의 진화 추진

AMR 전문기업으로의 완전한 전환을 목표로 지속적인 생산 인프라 확충과 기술 고도화에 투자하고 있음. 2025년 자율주행로봇의 본격 양산 공급 시작과 함께 Visual SLAM, AI 알고리즘, Digital Twin 등 첨단 기술 개발에 집중하며 로보틱스 종합 기업으로의 진화를 모색함. 고정밀 Direct Docking과 Fusion SLAM 기술을 바탕으로 자동화율 90~100% 달성이 가능한 차별화된 AMR 솔루션을 통해 글로벌 물류 로봇 시장에서의 선도적 지위 확보를 추진하고 있음.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2021	2022	2023	2024	2025F
매출액(억원)	1,063	2,012	3,360	2,444	2,517
YoY(%)	134.5	89.1	67.0	-27.3	3.0
영업이익(억원)	66	148	228	36	117
OP 마진(%)	6.2	7.3	6.8	1.5	4.6
지배주주수익(억원)	56	26	118	162	144
EPS(원)	525	247	1,086	1,415	1,253
YoY(%)	119.2	-53.0	3400	30.3	-11.5
PER(배)	54.5	88.0	251	9.2	10.1
PSR(배)	2.9	11	0.9	0.6	0.6
EV/EBITDA(배)	34.0	12.9	11.1	25.2	12.4
PBR(배)	2.9	1.8	1.9	0.8	0.8
ROE(%)	5.5	2.2	8.1	9.5	7.9
배당수익률(%)	0.4	0.5	0.9	1.6	1.7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8/25)	12,620원
52주 최고가	17,686원
52주 최저가	11,310원
KOSDAQ (8/25)	798.02p
자본금	56억원
시가총액	1,447억원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수	11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2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2억원
외국인지분율	16.8%
주요주주	이재환 외 11인
	21.27%
	정갑용 외 5인
	10.70%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2.3	-20.8	-14.2
상대주가	3.4	-23.6	-16.9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부채비율', 성장성 지표는 'EPS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ROE', 활동성 지표는 '순운전자본회전율', 유동성 지표는 '유동 비율'임. 2) 표지 벤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벤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벤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기업 개요

■ 1998년 설립된 자동화 시스템 전문기업

2차전지·반도체·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 대상

코윈테크는 1998년 10월 14일 설립된 스마트팩토리 자동화 시스템 전문기업으로,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에 본사를 두고 20여년간 축적된 공정 자동화 제어기술과 시스템 설계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맞춤형 자동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2차전지,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식품 등 광범위한 산업 영역에서 자동화 장비 일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Turn-key 방식으로 구축하는 것이 주력 사업이며, 2019년 8월 5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며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했다. 설립 이후 26년간의 기술 축적을 통해 중소기업이자 벤처기업으로 성장한 코윈테크는 한국평가데이터로부터 A- 신용등급을 획득하며 우량한 신용상태를 인정받고 있다.

헝가리·미국·캐나다 해외법인

설립 완료

코윈테크는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해외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10월 헝가리 법인을 시작으로 2023년 11월 미국 법인(Cowintech America Inc.), 2024년 2월 캐나다 법인(Cowintech Canada Inc.)을 차례로 설립하며 북미 및 유럽 시장 진출을 완료했다. 특히 2021년부터 2차전지 소재 사업 영역으로 확장하면서 고성능 전극 및 가격 경쟁력 중심의 양극재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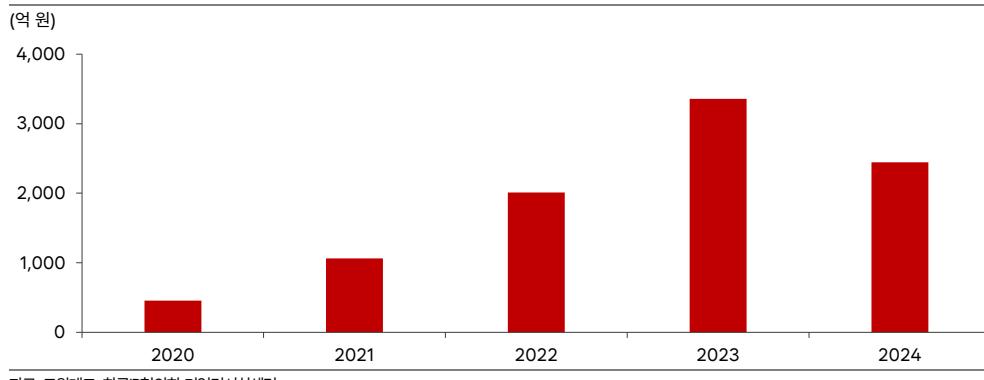
자율주행로봇 양산으로

신성장동력 확보

코윈테크는 지속적인 생산 능력 확충을 통해 사업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2022년 4월 전극 생산 공장 준공을 시작으로 같은 해 7월 1사업장 내 증축 공장을 완공했다. 2023년에는 자동화 시스템 제조 공장인 제3사업장을 신규 취득하고 증축 공장 건설에 착공하여 2024년 4월 준공을 완료하는 등 생산 인프라 확대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2025년에는 자율주행로봇(AMR)의 본격 양산 공급을 시작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고, 2차전지 소재 사업의 경우 양산시설 확충을 통해 본격적인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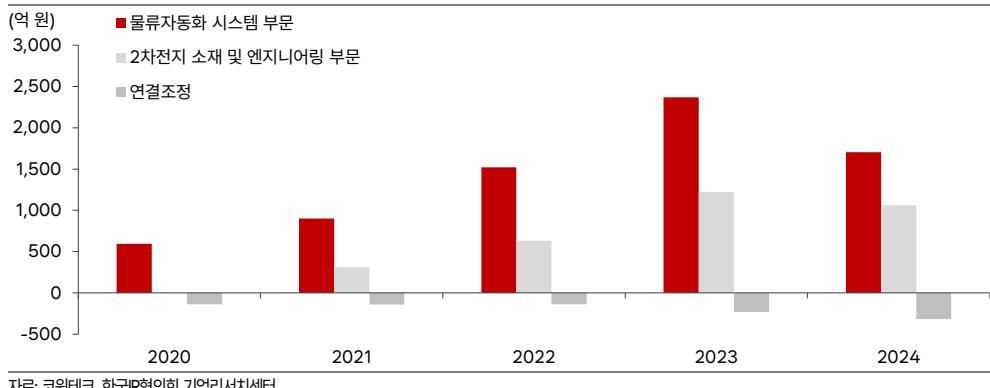
2024년 주요 사업부별 매출은 물류자동화 시스템 부문 1,703억 원, 2차전지 소재 및 엔지니어링 부문 1,061억 원, 연결조정 -320억 원을 달성했다.

코윈테크 연간 매출(2020~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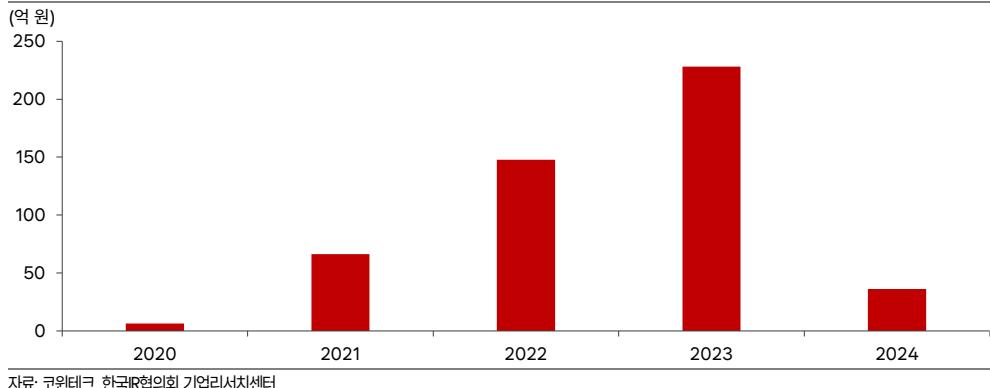
자료: 코윈테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코원테크 사업부별 매출(2020~2024년)



자료: 코원테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코원테크 연간 영업이익(2020~2024년)



자료: 코원테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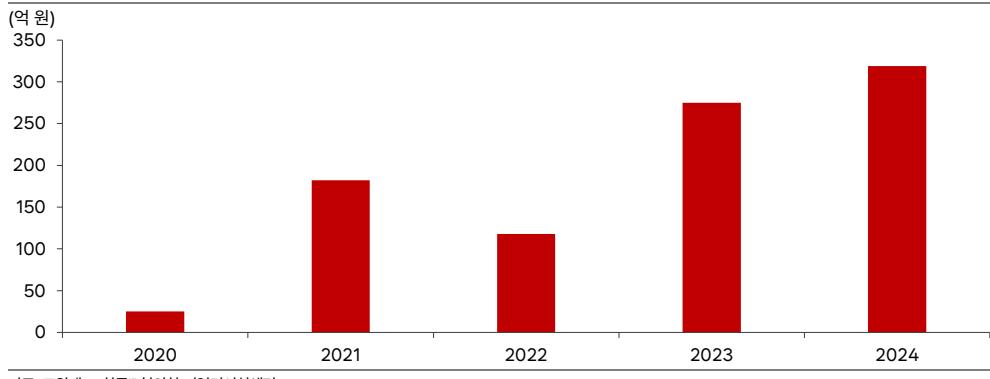
▣ 로봇 전문 기업으로 변신 중

2020년부터 물류 로봇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여 빠른 성장

코원테크는 2020년부터 물류 로봇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여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물류 로봇 시장이 두 자릿수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코원테크의 물류 로봇 매출은 연평균 89.3%라는 시장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2020년 25억 원에서 시작한 매출이 2024년 319억 원까지 급성장했다.

코원테크의 물류 로봇 사업 경쟁 우위는 제조업 물류 로봇 시장 선점을 위한 차별화된 역량에 있다. 첫째, 대규모 투자를 요하는 배터리 산업 AGV(Automated Guided Vehicle, 무인 운반차)/AMR(Autonomous Mobile Robot, 자율주행 로봇) 선점을 통해 고부가가치 시장을 확보했고, 둘째, 고정밀 도킹 기능과 AMR 기술 고도화를 통한 기술적 차별화를 이뤘다. 셋째, 2차전지, 자동차, 반도체 등 High-Tech 산업으로의 확장을 통해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넷째, 풍부한 프로젝트 포함 자동화 시스템 Turn-key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 솔루션 제공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코원테크는 제조업 물류 로봇 시장 선점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코윈테크 물류 로봇 매출(2020~2024년)



자료: 코윈테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다양한 형태의 물류 로봇을 보유

제품 라인업 측면에서 코윈테크는 기본형 AMR(Autonomous Mobile Robot, 자율주행 로봇)부터 스택 팔레트형(Stack Pallet, 화물 운반용 나무나 플라스틱 받침대인 팔레트를 적재할 수 있는 형태), 클린룸용(Clean Room, 무균 환경용), 지그(Jig, 작업물 고정 장치) 이송용 AMR, 그리고 모바일 매니퓰레이터(Mobile Manipulators, 이동형 로봇팔)까지 다양한 형태의 물류 로봇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Portfolio, 제품 구성)를 구축했다. 특히 경쟁사 대비 AMR 기술 비교에서 코윈테크는 $\pm 5\sim 10\text{mm}$ 의 정밀도로 업계 최고 수준의 정확도를 자랑하며, 자체 개발한 SLAM(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동시 위치 추정 및 지도 작성) 기술과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레이저 이용한 거리 측정), Vision(비전, 영상 인식) 센서를 융합한 고도화된 센싱(Sensing, 감지)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코윈테크의 기술적 우위는 고정밀 Direct Docking(직접 도킹, 정확한 연결) 및 Fusion SLAM(융합형 위치추정기술) 기술에 있다. 이는 AMR이 목적지에 정확히 도킹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기술로, 제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높은 정밀도를 만족시킨다. 또한 자동화율 90~100% 달성을 통해 고객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코윈테크는 2021년 2차전지 전극 양산라인 AGV(Automated Guided Vehicle, 무인 운반차) 납품을 시작으로, 2023년 Roll to Roll(롤투롤, 연속 공정) 공정 범위 확대 공급, 2025년 자율주행 AMR 본격 상용화, 그리고 2025년 국내 2차전지, 석유화학, 제철에너지 등으로 AMR 수주를 확대하는 단계적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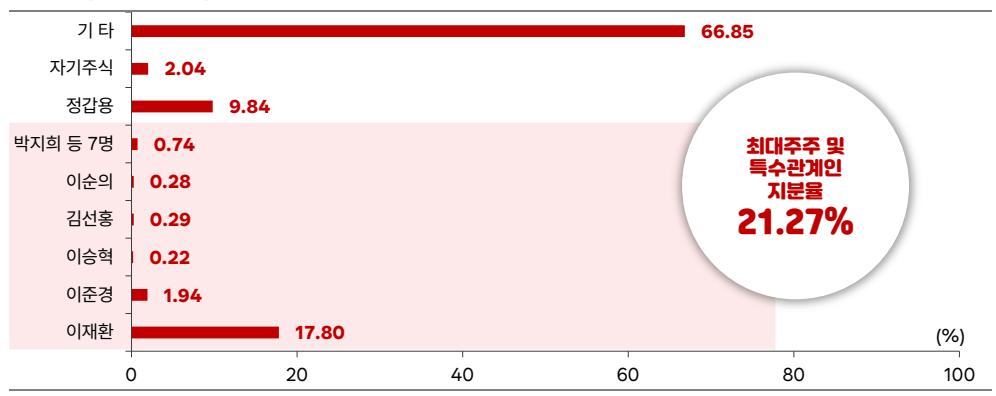
제조업 분야 장비업체로서의 실적 보유도 코윈테크의 강점 중 하나다.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소재, 일반(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축적한 경험을 통해 각 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했다. 특히 제조업 현장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한 물류 이송을 넘어서 생산 공정과 연계된 통합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다.

▣ 주주 구성

최대주주는 이재환 회장

코윈테크의 최대주주는 이재환 회장으로, 2025년 6월 30일 기준 204만 1,584주(17.80%)를 보유하고 있다. 이재환 회장은 1981년부터 1991년까지 삼성중공업과 삼성전자에서 자동화 업무를 담당했으며, 이후 삼성항공에서 시스템업무 팀장을 거쳐 세화전자 관리이사를 역임한 후 2001년 코윈테크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경영하고 있다. 특수관계인들을 포함한 지분은 총 21.27%로, 가족 구성원들이 소액 지분을 분산 보유하고 있는 구조다. 경영진 구성을 살펴보면, 창업자인 이재환 회장과 함께 자동화 분야 전문가인 최현순 대표이사가 각자 대표 체제로 코윈테크를 이끌고 있다. 최현순 대표이사는 1986년 인하대학교 기계계열 조선공학과를 졸업한 후, 1989년부터 1991년까지 삼성전자에서 자동화 기계설계 업무를 담당했으며, 이후 삼성테크원 자동화 System설계부를 거쳐 약 25년간 DAIFUKU에서 FA&DA사업부 Engineering 본부, Global 본부, IL사업부 Global 사업부문을 담당하며 물류 자동화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DAIFUKU는 일본의 대표적인 물류 자동화 전문기업으로, 최 대표이사는 이 회사에서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2025년 코윈테크에 합류하여 자동화 사업 부문을 총괄하고 있다. 최대주주인 이재환 회장과 최현순 대표이사의 자동화 분야 경험은 코윈테크가 2차전지 소재 장비와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사업에서 기술적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주 구성(2Q25말 기준)





산업 현황

■ 물류 산업용 로봇에서는 AGV와 더불어 AMR의 수요가 증가하는 중

AGV는 1953년 미국에서

시작되어 1960년대부터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공장 내

부품 운송에 도입

코윈테크가 신사업으로 주력하는 분야는 AMR이다. 최근 로봇 산업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가장 먼저 상용화되고 있는 것은 특정 작업에 특화된 로봇들이다. 특히 제조업과 물류 분야에서는 자동화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물류 자동화 로봇이다. AMR은 자율주행 이송 로봇(Autonomous Mobile Robot)을 의미하는데 AMR에 대해 논하려면 AGV를 빼놓을 수 없다. AGV(Automated Guided Vehicle)가 정해진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전통적인 자동 운반 시스템이라면, AMR은 여기서 한 단계 진화한 개념이다. AMR은 인공지능과 센서 기술을 활용해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최적의 경로를 찾아 이동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으로, 기존 AGV의 한계였던 고정된 경로 의존성을 극복했다. 코윈테크는 이러한 AMR 기술을 바탕으로 2차전지, 반도체, 자동차 등 하이테크 산업 분야에서 물류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며, 특히 높은 정밀도의 직접 도킹(Direct Docking) 기술과 융합 SLAM(Fusion SLAM) 기술을 통해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성능을 구현하고 있다.

AGV는 정해진 경로(바닥에 그어진 선)를 따라 이동하는 운반 시스템



자료: <https://robodk.com/blog/wp-content/uploads/2025/06/Stock-1302200961-2.jpg>,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AMR은 특정 경로에 국한되지 않는 이동 시스템



자료: <https://www.conger.com/wp-content/uploads/2022/05/bastian-amr.jpg>,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AMR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등장한 기술

AMR과 AGV는 언제부터 물류 자동화 솔루션으로 쓰이기 시작했을까? AGV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되었다. 최초의 AGV는 1953년 미국에서 A.M. Barrett Jr.가 기존의 견인용 트랙터를 전환하여 천장 또는 바닥에 매립된 전선을 따라 움직이도록 만든 장치였으며, 이후 1950년대 말 Barrett Electronics가 와이어를 따라가는 견인 트렉형 AGV를 시장에 내놓기 시작했다.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공장 내 부품 운송을 위해 도입하기 시작했다.

초기 AGV는 매우 단순한 원리로 작동했다. 공장 바닥에 자기 테이프를 붙이면 AGV에 장착된 자기 센서가 이 테이프에서 나오는 자기장을 감지해 경로를 따라가고, 전선을 매설하는 방식에서는 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만드는 전자기장을 AGV의 센서가 읽어내며 길을 찾아간다. 마치 기차가 선로를 따라가듯 '길'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상상해보면 거대한 무선조종 자동차가 미리 그어진 선을 따라 움직이는 모습과 비슷하다. 물론 지금 기준으로는 매우 원시적인 기술이지만, 당시로서는 혁신이었다. 사람이 직접 무거운 부품을 운반하던 시대에서 로봇이 24시간 쉬지 않고 정확하게 물건

을 나르게 된 것이다. 특히 자동차 공장처럼 같은 경로를 반복적으로 이동해야 하는 환경에서는 인건비 절약은 물론, 작업자의 안전사고 위험도 줄일 수 있었다.

AGV의 등장이 특별한 이유를 이해하려면 당시 공장 자동화의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60년대 공장에서 자동화라고 하면 대부분 한 곳에 고정된 기계들이 전부였다. 로봇 기술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당시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는 주로 직교 좌표 로봇(Cartesian Robot)이 주류를 이뤘다. 이는 X, Y, Z축을 따라 직선으로만 움직이는 로봇으로, 마치 3차원 프린터처럼 정해진 축을 따라 정확하게 이동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런 로봇들은 고정된 위치에서만 작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넓은 공장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며 물건을 운반하는 AGV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혁신이었다.

AGV는 이후 수십 년간 꾸준히 발전했지만, 근본적으로는 미리 설정된 고정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자기 테이프나 전선, 그리고 나중에는 레이저 가이드나 QR 코드 등으로 방식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정해진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제약은 동일했다. 경로를 변경하려면 바닥 공사를 다시 하거나 새로운 마커를 설치해야 했고,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나면 멈춰서 사람의 도움을 기다려야 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 발전이 지속되면서, 마침내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로봇이 등장하게 된다.

반면 AMR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등장한 기술이다. AMR(Autonomous Mobile Robot, 자율주행 이송 로봇)은 AGV와 달리 미리 설정된 경로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하여 최적의 경로를 찾아 이동하는 지능형 로봇이다. 마치 사람이 처음 가는 장소에서도 주변을 살펴보며 길을 찾아가는 것처럼, AMR은 레이저 센서와 카메라로 실시간으로 주변을 스캔하고 인공지능으로 상황을 판단해 목적지까지의 최적 경로를 스스로 계산한다. 장애물이 나타나면 피해서 가거나 잠시 기다렸다가 지나가는 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 AGV의 고정 경로 한계를 완전히 극복한 것이다. 2000년대 후반부터 레이저 센서, 카메라,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본격적인 AMR 개발이 시작되었고, 2010년대 중반 이후 상용화가 가속화되었다. 특히 아마존이 2012년 키바 시스템즈(Kiva Systems)를 인수한 것이 전환점이 되었다.

키바의 로봇은 기술적으로는 바닥의 컴퓨터화된 바코드 스티커를 따라 움직이는 AGV 방식이었지만, 창고 내 물품을 스스로 들어 올려 작업자에게 운반하는 혁신적인 '상품이 사람에게 가는(Goods-to-Person)' 시스템을 구현했다. 이는 현대 AMR 기반 창고 자동화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AMR에 대한 관심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가속화시켰는데, 비대면 작업 환경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물류 로봇 시장의 성장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물류 자동화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AGV나 AMR 같은 이동 로봇 외에도 다양한 보조 장치들이 필요하다. 특히 물건을 집고 놓는 작업을 담당하는 그리퍼(Gripper)나 로봇팔(Robot Arm)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퍼는 사람의 손가락처럼 물건을 잡는 장치로, 집게 형태의 기계식 그리퍼부터 진공을 이용해 물건을 빨아들이는 진공 그리퍼, 그리고 자기장을 이용한 자석 그리퍼까지 다양한 방식이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상품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소프트 그리퍼(Soft Gripper)도 등장해 깨지기 쉬운 제품이나 불규칙한 형태의 물건까지 섬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종합적인 자동화 솔루션을 통해 현대의 물류 센터는 단순한 이송 작업을 넘어 분류, 포장, 적재까지 전 과정의 무인 자동화를 실현해가고 있다.

직교 좌표 로봇(Cartesian Robot)



자료: https://img.machinedesign.com/files/base/ebm/machinedesign/image/2013/12/machinedesign_com_sites_machinedesign.com_files_uploads_2013_09_121213_6_Cartesian_robot_supports.png?auto=format,compress&fit=max&q=45&w=640&w=640,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키바 시스템즈(Kiva Systems) 로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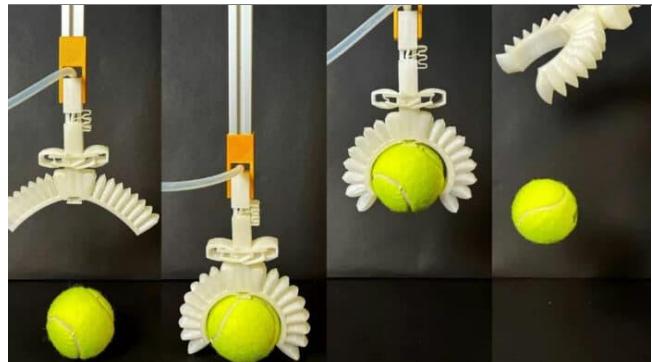
자료: https://www.automatedwarehouseonline.com/wp-content/uploads/2024/09/Kiva_Systems_AMRs_Foto_Kiva.jpg,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물류 센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Gripper



자료: <https://roas.co.kr/wp-content/uploads/2021/02/Delta-Gripper-001-765x1024.jpg>,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상품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소프트 그립퍼



자료: <https://www.techexplorist.com/wp-content/uploads/2023/07/soft-robotic-gripper-696x392.jpg>,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로봇의 응용처 중에서 물류 및 창고 자동화가 단일 응용 분야로는 압도적인 1위를 차지

응용 분야별 시장 점유율을 자세히

살펴보면, 물류 및 창고 자동화가

2024년 기준 39.6%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

그렇다면 현재 로봇 시장에서 물류 로봇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까? 로봇 산업을 크게 분류하면 산업용 로봇, 서비스 로봇, 특수 목적 로봇으로 나눌 수 있다. 산업용 로봇은 로봇 시장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닌 로봇을 의미하며 용접, 도장, 조립을 담당하는 다관절 로봇을 포함한다. 서비스 로봇에는 청소 로봇, 의료용 로봇, 그리고 최근 주목받는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다양한 분야가 있다.

시장 조사 기관 www.mordorintelligence.com의 발표에 따르면 글로벌 로봇 시장의 전체 규모는 2025년 현재 736 억 4천만 달러 규모에서 2030년에는 1,853억 7천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연평균 20% 수준의 상당한 성장을 의미한다. 로봇 유형별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산업용 로봇이 2024년 기준 71.4%로 압도적인 1위를 차

지하고 있으며, 서비스 로봇이 28.6%의 비중을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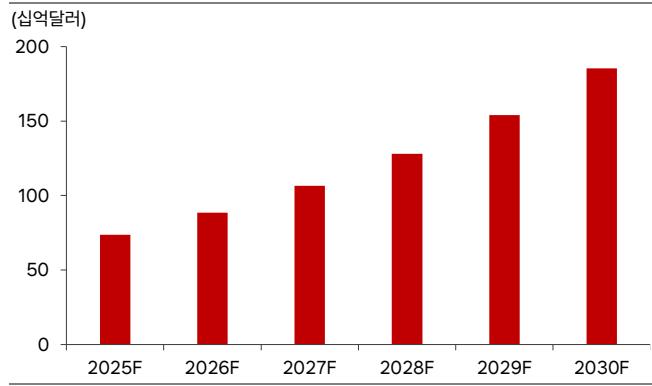
한편, 응용 분야별 시장 점유율을 자세히 살펴보면, 물류 및 창고 자동화가 2024년 기준 39.6%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는 국방 및 보안, 의료 및 수술, 검사 및 유지보수, 청소 및 위생 등 기타 모든 응용 분야를 합친 60.4%와 비교해봐도 상당한 규모다. 특히 물류 및 창고 자동화가 단일 응용 분야로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물류 로봇이 로봇 시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는 전자상거래 급성장으로 인한 창고 자동화 수요 폭증,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무인화 필요성 증대, 그리고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이 가능한 로봇의 특성이 물류 산업의 요구와 완벽히 부합하기 때문이다.

물류 자동화 로봇의 핵심인 AMR(Autonomous Mobile Robot)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AMR 시장 규모는 2025년 44억 9천만 달러에서 2030년 92억 6천만 달러로 연평균 15.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흥미롭게도 AMR의 성장률은 전체 로봇 시장의 20.3% 성장률보다는 다소 낮은데, 이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의료용 로봇 등 신흥 분야가 전체 로봇 시장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AMR 시장은 몇 가지 제약 요인에 직면해 있다. 우선 각 회사마다 다른 소프트웨어와 통신 방식을 사용해 서로 다른 브랜드의 AMR이 함께 작동하기 어려운 호환성 문제가 있다. 마치 애플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의 충전기가 다른 것처럼, A회사 AMR과 B회사 AMR을 하나의 창고에서 동시에 사용하려면 별도의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더불어 대형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중량급 AMR의 경우 초기 도입 비용이 수억 원에 달해 중소기업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5G 네트워크, 그리고 배터리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AMR의 운영 비용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 원가가 2024년 kWh당 115달러로 전년 대비 20% 하락하며 2017년 이후 최대 폭락했고,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조사기관 블룸버그NEF는 2026년 kWh당 100달러, 2030년에는 69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AMR의 운영 비용에서 배터리 생산 원가가 차지하는 정확한 비중을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가 총 비용의 약 30-40%를 차지하고 있어 AMR에서도 배터리 비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터리 가격 하락으로 AMR이 더 오랫동안 작업할 수 있게 되었고, 배터리 교체 비용도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 되어 기업들의 도입 결정을 쉽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이 상업적 실용성을 크게 높이면서 AMR 시장은 여전히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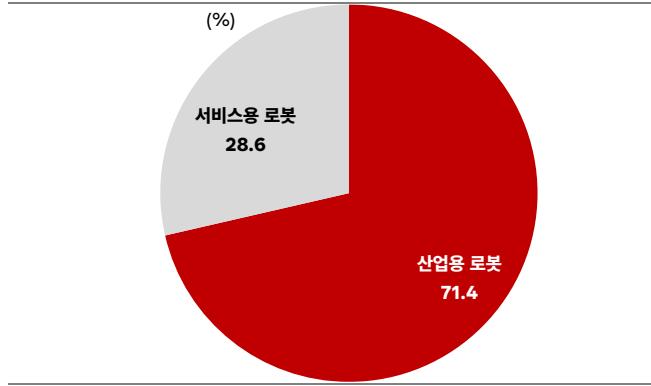
더욱 주목할 점은 전자상거래 3PL 업체들의 창고 AMR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3PL(Third Party Logistics) 이란 기업이 물류 업무를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아마존, 쿠팡 같은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창고 운영을 전문 물류 업체에 맡기면서 이들 업체가 효율성 향상을 위해 AMR을 대거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장을 면에서도 물류 로봇의 우위는 명확하다. 물류 및 창고 자동화 로봇은 전자상거래 확산, 인건비 상승, 그리고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비대면 작업 환경 필요성으로 인해 지속적인 두 자릿수 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아마존 키바 시스템 도입 이후 창고 자동화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단순히 공장 내 작업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전체 공급망의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로봇 시장의 전체 규모는 2025년 현재 736억 4천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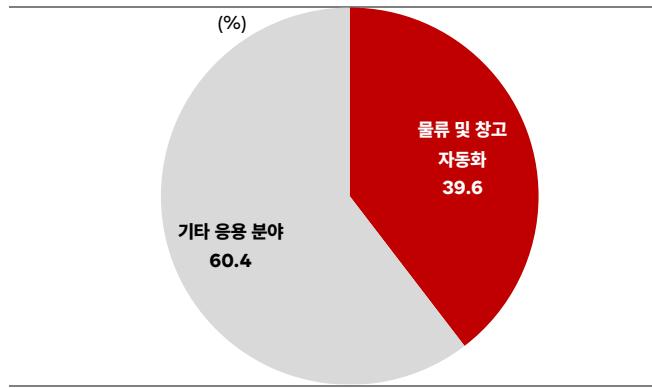
자료: Mordor Intelligenc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로봇 유형별 시장에서 산업용 로봇이 71.4%로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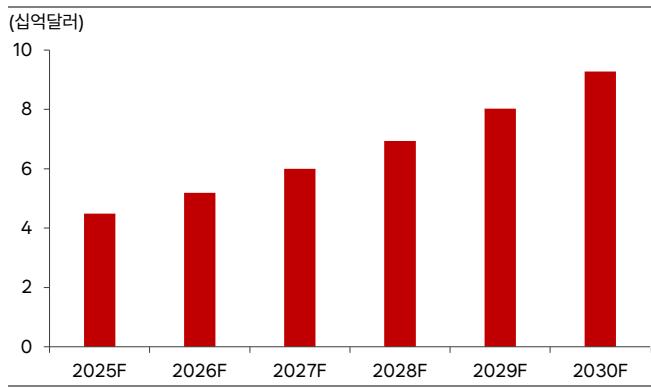
자료: Mordor Intelligenc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응용 분야별 시장에서는 물류 및 창고 자동화가 39.6%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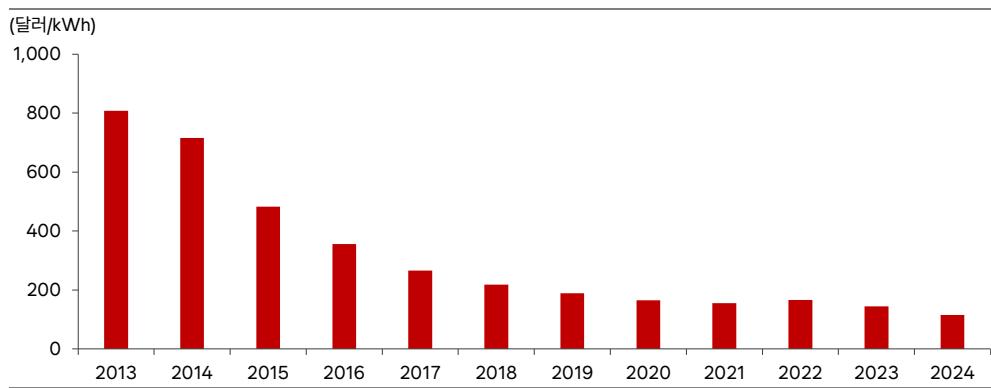
자료: Mordor Intelligenc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글로벌 로봇 시장 중에서 AMR 시장 규모는 2025년 현재 44억 9천만 달러



자료: Mordor Intelligenc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AMR의 운영 비용에 영향을 끼치는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 원가 하락



자료: BNEF,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AGV, AMR 제조업체들은 각자의 특색에 맞게 발전하는 중

기술적 성숙도와 시장 접근 전략에 따라 크게 세 개 권역으로 구분

이러한 시장 성장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AGV, AMR 제조업체들은 각자의 특색에 맞게 발전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AGV/AMR 시장은 지역별로 뚜렷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기술적 성숙도와 시장 접근 전략에 따라 크게 세 개 권역으로 나눌 수 있다. 유럽과 일본의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 강국들이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면, 중국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고, 미국은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세대 솔루션을 개발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과 일본의 전통 강자들을 살펴보면, 독일의 KUKA와 덴마크의 Mobile Industrial Robots(현재 미국의 반도체 장비사 테라다인 소유), 스웨덴의 ABB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수십 년간 축적된 산업 자동화 노하우를 바탕으로 높은 정밀도와 안정성을 자랑하는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항공우주, 정밀 기계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품질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이 이들의 강점이다. 일본의 경우 다이후쿠 등이 물류 자동화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클린룸이나 반도체 제조 환경에서 요구되는 초정밀 AGV 기술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중국 제조업체들의 부상은 놀라울 정도다. Geek+, 하이크비전 로보틱스(Hikvision Robotics), 유아이파스 (UIPath) 등이 대표주자로, 이들은 대량 생산을 통한 원가 절감과 빠른 기술 개발 속도로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특히 중국 내수 시장의 폭발적 성장에 힘입어 실전 경험을 축적하며 기술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들의 가격 경쟁력은 중소기업이나 신흥국 시장 진출에 큰 장점이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술 수준도 상당히 향상되어 전통 강국들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와 AI 기술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로커스 로보틱스(Locus Robotics), 6 리버 시스템즈(6 River Systems), inVia Robotics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인데, 이들은 기존 창고 인프라를 최소한으로 변경하면서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능형 소프트웨어 솔루션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머신러닝과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최적화 알고리즘, 클라우드 기반 관제 시스템 등에서 앞서가고 있으며, 아마존 키바 시스템의 성공 이후 이러한 접근 방식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들의 혁신은 하드웨어의 한계를 소프트웨어로 극복하려는 시도로, 물류 로봇 산업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2차전지, 반도체, 자동차 등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물류 로봇의

국산화가 가속화

한국에서는 국가 주력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를 중심으로 AGV, AMR 국산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등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물류 로봇의 국산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특징이다. 2차전지 분야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배터리 3사의 국내외 공장 확장과 함께 클린룸 환경에 특화된 자동화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파운드리 및 메모리 생산라인에서 초정밀 웨이퍼 이송용 AGV/AMR이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스마트팩토리 구축과 함께 엔진, 배터리팩, 차체 부품 등의 중량물 이송용 AGV부터 완성차 조립라인의 AMR까지 다양한 형태의 물류 로봇이 도입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강력한 IT 인프라와 5G 네트워크를 활용한 실시간 관제 시스템, AI 기반 경로 최적화 기술 등 소프트웨어 영역에서도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해가며, 단순히 해외 기술을 모방하는 수준을 넘어 한국 제조업 환경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 청소장비, 라이다, 자동화, 반도체 분야에서 AMR 시장의 성장 확인 가능

순수 AGV/AMR 상장회사가

희소한 이유 및 산업 구조적 특성

전 세계적으로 순수하게 AMR을 주력 제품으로 공급하는 상장회사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물류 로봇 산업의 구조적 특성에 있다. AMR 시장은 제조용(산업용) 로봇 시장 규모 대비 상대적으로 작아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AMR 분야에서의 실적만으로 상장 요건을 충족할 만큼의 매출 규모나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물류 로봇은 결국 더 큰 자동화 솔루션의 일부분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기업들이 산업용 로봇, 협동로봇, 또는 종합적인 자동화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 AMR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유럽, 아시아, 미국의 주요 로봇 제조업체들 대부분이 AMR과 함께 다른 로봇 제품군을 함께 다루고 있으며, 미국의 로커스 로보틱스 같은 AMR 전문 기업들도 아직 상장보다는 벤처캐피털 투자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테넌트 컴퍼니의 AMR 시장

진출과 역사적 배경

다만 미국에는 테넌트 컴퍼니(Tennant Company, NYSE: TNC)라는 매우 흥미로운 사례가 있다. 테넌트 컴퍼니는 본래 1870년에 설립된 산업용 및 상업용 청소장비 전문업체로, 155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적인 제조업체였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자율주행 청소 로봇(AMR) 시장에 본격 진출하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테넌트는 기존의 수동식 청소장비에 센서, AI,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하여 ROVR 시리즈라는 AMR 청소 로봇 제품군을 개발했으며, 이를 통해 전통적인 청소장비 시장에서 스마트 클리닝 솔루션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테넌트의 AMR 사업 성과 및

구체적 실적

2025년 2분기 실적에서 테넌트는 AMR 관련 매출이 전년 대비 20%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누적 배치 대수가 10,000대를 초과했다는 점인데, 이는 AMR이 단순한 실험적 제품이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검증된 상용화 제품임을 입증한다. 특히 X4 ROVR와 X6 ROVR 등 차세대 로봇 청소기는 대형 소매점과 중소규모 산업 분야에서 긍정적인 시장 반응을 얻고 있으며, 회사는 이를 장기적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테넌트는 Clean360이라는 장비 서비스화(Equipment as a Service, EaaS) 프로그램을 런칭하여, 고객들이 초기 투자 부담 없이 AMR을 도입할 수 있는 구독 기반 모델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테넌트의 성공 요인과 기존 사업

기반 활용 전략

테넌트의 성공 요인은 기존 사업 기반을 활용한 전략적 접근에 있다. 회사는 이미 산업 및 상업용 청소 분야에서 구축한 영업망, 서비스 인프라, 고객 관계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AMR 기술을 접목했다. 이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순수 AMR 스타트업들과 달리, 검증된 시장과 고객 기반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술 혁신을 추진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제공했다. 또한 청소라는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작업의 특성상 AMR 기술과의 궁합이 매우 좋았으며, 인건비 상승과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북미 시장에서 강력한 수요를 창출할 수 있었다. 이는 순수 AMR 전문 기업보다는 기존 산업 기반을 가진 회사들이 AMR 기술을 접목해 시장에서 성공하는 패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유사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테넌트 컴퍼니(Tennant Company)의 자율주행 청소 로봇(AMR)



자료: Tennant Company,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라이다 업계의 AMR 시장 주목 및

마이크로비전 사례

AMR 시장의 성장은 AMR 제조 시 핵심 부품인 라이다(LiDAR) 공급사들의 실적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MicroVision(NASDAQ: MVIS) 같은 라이다 전문 기업들이 AGV/AMR 시장을 주요 성장 동력으로 주목하고 있다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MicroVision은 자동차용 라이다 개발로 시작했지만, 최근 들어 산업용 AGV/AMR 시장에서 단기 수익 기회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특히 기존 지게차 차량에 후장착할 수 있는 라이다 충돌 회피 시스템(LCAS, LiDAR Collision Avoidance System)을 개발하여 AGV/AMR 업체들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25년 하반기와 2026년에 상당한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AMR 시장이 라이다 센서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를 창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이크로비전의 AGV/AMR 사업

진전과 파트너십

MicroVision의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AGV/AMR 관련 사업의 구체적인 진전이 확인됐다. 회사는 여러 산업 고객들과 최종 평가 단계에 있으며, 특히 현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2D 기계식 라이다를 3D 고체 상태(Solid State) 라이다로 교체하려는 AGV/AMR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프랑스의 자동차 부품 회사 ZF 와 생산 파트너십을 통해 MOVIA L 센서의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AGV/AMR 고객들의 대량 주문에 대응할 준비를 마쳤다고 발표했다. 라이다 업계에서 이렇게 AGV/AMR 시장을 차세대 성장 엔진으로 주목하고 있다는 점은 물류 로봇 시장의 기술적 고도화와 함께 실제 수요가 가시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라이다 기업들의 통합 솔루션 제공

및 시장 진화

더욱 주목할 점은 라이다 기업들이 단순한 센서 공급을 넘어서 소프트웨어까지 포함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려 한다는 것이다. MicroVision은 라이다 하드웨어와 함께 인식 소프트웨어, 충돌 회피 시스템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여 AGV/AMR 제조업체들이 보다 쉽게 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AGV/AMR 시장이 단순한 하드웨어 조립 단계를 넘어서 고부가가치 지능형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동시에 관련 부품 공급업체들에게도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AMR 시장의 성장은 완성품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핵심 부품과 기술을 공급하는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록웰 오토메이션의 AMR 관련

사업 성장 현황

산업 자동화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록웰 오토메이션(Rockwell Automation, NYSE: ROK)의 실적에서도 AMR 시장의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록웰은 전자상거래 및 창고 자동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AMR 기술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반영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록웰이 기존 핵심 자동화 제품 외에도 자율 물질 이동(autonomous material movement) 솔루션에 대한 고객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회사는 단순한 스테이션 간 이동부터 복잡한 화물 처리까지 AMR 플릿을 고객의 운영 요구사항에 맞게 확장하고 나머지 자동화 시스템과 통합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록웰의 클리어패스 플랫폼과 자동화 생태계 통합

록웰의 AMR 관련 사업 확장은 Clearpath라는 자율주행 모바일 로봇 플랫폼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Clearpath 매출은 2분기 연속 두 자리 수 성장을 기록했으며, 록웰은 이 플랫폼을 전체 자율 운영 로드맵과 통합하여 고객의 자본 지출 투자가 제한된 상황에서도 수익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통적인 산업 자동화 기업들이 AMR 기술을 자신의 기준 제품 포트폴리오와 어떻게 융합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록웰 같은 기업들이 AMR을 단독 제품이 아닌 전체 자동화 생태계의 일부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은, AMR 시장이 단순한 로봇 판매를 넘어서 통합 자동화 솔루션 시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록웰의 대규모 투자 계획과 AMR 기술 중요성

더 나아가 록웰은 향후 5년간 20억 달러를 공장, 디지털 인프라, 인재에 투자하여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마진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투자의 상당 부분이 자동화 기술 구현을 통한 공장 효율성 향상에 집중될 예정이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 계획은 산업 자동화 분야에서 AMR을 포함한 지능형 로봇 기술의 중요성이 급격히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록웰이 자사 공장에서 창고 자동화를 비롯한 운영 우수성 개선 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AMR 기술이 이제 고객에게 판매하는 제품을 넘어서 자동화 기업들 스스로도 필수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핵심 기술로 자리잡았음을 의미한다. 이는 AMR 시장이 더 이상 틈새 시장이 아니라 산업 자동화의 주류로 편입되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ADI의 산업 자동화 사업 성장과 시장 동향 분석

한편, 반도체 및 아날로그 칩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아날로그 디바이시스(Analog Devices, NASDAQ: ADI)의 실적에서도 AMR 시장의 성장이 간접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ADI는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산업 자동화 사업이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고 밝혔으며, 특히 자사의 10억 달러 규모 산업 자동화 사업이 마지막으로 두 자릿수 성장에 복귀한 부문이라고 강조했다. CEO 빈센트 로체는 "인구통계학적 압박과 거시경제적 압력, 그리고 실시간 인텔리전트 엣지 데이터 활용을 통한 비즈니스 혁신 가능성이 새로운 자동화 도입 물결을 이끌고 있으며, 새로운 로봇 모달리티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AMR을 포함한 로봇 시장이 단순한 생산성 향상을 넘어서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변화시키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ADI와 테라다인의 협력 및 휴머노이드 로봇 기회

특히 주목할 점은 ADI가 테라다인 로보틱스(Teradyne Robotics)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정밀 포지셔닝과 동적 모션 제어 솔루션을 제공하여 물류 산업향 고성능 협동로봇과 AMR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ADI는 현재 최첨단 AMR에 포함되는 자사 부품의 가치가 대당 수천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으며, 향후 등장할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는 이보다 10 배 증가한 수만 달러의 부품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모든 관절과 접촉 지점에서 정확한 센싱과 정밀 모터 제어가 필요하며, 각각의 센서와 액추에이터마다 신호 처리 및 전력 관리 솔루션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ADI는 2030년까지 자동화 사업을 두 배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AMR 시장의 성장이 단순히 로봇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핵심 반도체 부품 공급업체에게도 엄청난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DI-NVIDIA 협력과 AMR**시장의 솔루션 진화**

더욱 흥미로운 것은 ADI가 NVIDIA와 협력하여 휴머노이드 및 기타 로봇 시스템을 위한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프로그램과 레퍼런스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ADI의 독특한 센서 전문성과 최신 로봇 정책 훈련 기술을 결합하여 NVIDIA의 Isaac Sim(로봇 시뮬레이션 및 AI 훈련 플랫폼)의 현실감을 향상시키고 고객들의 혁신 타임라인을 대폭 단축시키고 있다. 특히 데이터센터에서의 케이블 조립이나 자동차 제조업에서의 정교한 조작 작업 같은 고부가가치 응용분야에 특히 적합하다(relevant, 관련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협력은 AMR 시장이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와 AI가 통합된 종합 솔루션 시장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반도체 업계의 최고 기업들이 이 변화를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 제조업 고객사들의 공정 자동화 수요에 부응하는 특화된 물류 로봇 기술 보유

제조 공정 내에서 요구되는 정밀한

위치 제어, 다양한 작업 환경

적응력, 그리고 기존 생산설비와의

seamless한 연동 기능을 제공

코윈테크의 첫 번째 투자포인트는 단순히 물류센터용 로보틱스 기술을 보유한 것이 아니라 제조업 고객사들의 공정 자동화 수요에 부응하는 특화된 기술력을 갖춘 스마트 팩토리용 물류 로봇 전문기업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인 물류센터 AMR이 단순한 화물 운반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코윈테크의 AMR은 제조 공정 내에서 요구되는 정밀한 위치 제어, 다양한 작업 환경 적응력, 그리고 기존 생산설비와의 seamless한 연동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코윈테크는 ±5~10mm의 고정밀 Direct Docking 기술과 자체 개발한 Fusion SLAM, 그리고 LiDAR와 Vision을 융합한 센서 시스템을 통해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자체 RCS(Robot Control System)를 보유하여 외부 ACS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로봇 통합 제어가 가능하며, Clean Room 환경에서도 작동 가능한 방폭·방진 기능까지 지원한다.

이는 2차전지 장비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고정밀 자동화 기술과 제조업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단순한 운반용 로봇을 넘어서 제조 공정의 효율성과 품질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지능형 물류 솔루션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21년부터 2차전지 전극 양산라인 AGV 납품을 시작하여 2023년 Roll to Roll 공정까지 범위를 확대했으며, 2025년에는 국내 2차전지, 석유화학,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제조업 분야로 AMR 수주를 확대하고 있다. 코윈테크는 AMR 사업 시작 이후 현재까지 1,000억 원 이상의 누적 수주를 달성하며 제조업 물류 로봇 분야에서 검증된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같은 유통업체 중심의 물류센터 AMR 시장과는 차별화된 포지셔닝으로 제조업 특화 AMR 시장에서 독특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2 AMR 구성에서 관제시스템의 핵심 기술 내재화

관제시스템의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는 RCS 구현을 위해 자체

ACS를 탑재

코윈테크의 두 번째 투자포인트는 AMR 구성에서 관제시스템의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는 RCS 구현을 위해 자체 ACS를 탑재했다는 것이다. RCS(Robot Control System)는 여러 대의 모바일 로봇들을 통합적으로 제어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고, ACS(Autonomous Control System)는 로봇의 자율 제어를 담당하는 핵심 소프트웨어다. 시스템이 제대로 연동되어야 여러 대의 AMR이 동시에 작업하면서도 서로 충돌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동 기술이 중요한 이유는 AMR의 실제 운영 성능과 안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특히 제조업 환경에서는 수십 대의 AMR이 동시에 운영되면서 복잡한 공정 간 물류를 처리해야 하는데, 이때 관제시스템의 성능이 전체 생산 효율성을 결정한다. 또한 기존 생산설비나 MES(제조 실행 시스템)와의 연동도 관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체 ACS를 보유한 코윈테크는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춘 맞춤형 솔루션 제공이 가능하다. 반면 경쟁사들은 대부분 외부 컨트롤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시스템 통합 시 제약이 많고 고객별 커스터마이징에 한계가 있다. 코윈테크가 자체 개발한 ACS를 통해 전사 수익성 개선을 견인하고 자동화율 90~100%를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기술적 우위 덕분이라 할 수 있다.

▣ 고정밀 디렉트 도킹 기술을 개발 및 적용

제조업 현장의 엄격한 요구사항을

충족

코윈테크의 세 번째 투자포인트는 AMR의 디렉트 도킹 기술이다. 이는 이차전지 제조설비의 자동화 경험을 통해 축적된 고정밀 기술력의 결과물로, 코팅 장비(전극 표면에 활물질을 균일하게 도포하는 장비)와 슬리터 장비(코팅된 전극을 정밀하게 절단하는 장비) 등의 정밀 공정 자동화에서 얻은 노하우가 집약되어 있다. 이차전지 제조에서는 마이크로 미터 단위의 정밀도가 요구되는데, 특히 코팅과 슬리팅 공정에서 미세한 흔들림이나 충격은 전극의 두께 불균일성이나 절단면 품질 저하를 야기하여 배터리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코윈테크는 이러한 초정밀 제조 환경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pm 5\text{~}10\text{mm}$ 의 고정밀 디렉트 도킹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AMR이 생산설비나 작업대와 물리적으로 접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미세한 진동이나 충격을 최소화하여 제품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일반적인 물류센터 AMR이 단순히 화물을 옮기는 수준의 정밀도로도 충분한 것과 달리, 제조업 특히 반도체나 이차전지 같은 정밀 산업에서는 로봇의 도킹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은 충격도 생산 품질에 치명적일 수 있다. 코윈테크의 디렉트 도킹 기술은 이러한 제조업 현장의 엄격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킴으로써, 단순한 물류 이동을 넘어 생산 공정 자체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차별화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실적 추이 및 전망****1 2024년 실적 리뷰****매출 감소, 영업이익 급감**

코윈테크는 2024년 연결 매출액 2,4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3%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84.2%나 급감하는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이러한 실적 부진의 주된 원인은 글로벌 전기차 및 배터리 시장의 성장둔화로 인한 캐즘(Chasm) 현상이 지속되면서 전방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쳤고, 전년도인 2023년에 장비 수주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자동화 시스템 사업부문은 국내 배터리사들의 투자 속도 조절과 일부 프로젝트 지연으로 매출액이 1,3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7% 감소했으나,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개선되어 견조한 수익성을 유지했다. 반면 2차전지 소재 및 시스템 엔지니어링 부문은 해외 배터리 고객사 신규 수주 확보에도 불구하고 일부 프로젝트들의 지연 등으로 매출액이 1,061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영업손실 72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었다. 코윈테크는 이러한 배터리 업황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부터 반도체, 자동차, 식품 등 다양한 산업으로 수주를 확대하는 시장 다변화 전략을 통해 특정 산업 의존도를 낮추고 대내외 시장 변동성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 2025년 상반기 실적 리뷰**매출 감소, 영업손실 기록하며 적자 전환**

코윈테크는 2025년 상반기 누적 매출액 74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4% 감소했으며, 영업손실 27억 원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 87억 원의 영업이익에서 적자 전환했다. 이는 주로 엔지니어링 사업부문의 매출 감소와 영업손실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지만, 자동화 사업부문은 매출과 수익성 모두 양호한 성과를 보이며 분기별 성장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자동화 사업에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용 전지와 46시리즈 라인 자동화 프로젝트가 매출 증가를 견인했고, AMR 프로젝트들이 수익성 개선에 기여하면서 북미 ESS용 LFP 전지 라인에 AMR 수십 대를 납품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상반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부진했지만, 2025년 현재까지의 신규 수주액이 지난해 연간 수주의 2배를 넘어서고 있어 긍정적이다. 반기보고서 기준 수주 잔고는 2,503억 원에 달하고 있어, 하반기 수주 잔고의 매출 전환과 자동화 사업부문의 지속적인 성장이 연간 실적 회복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3 2025년 연간 실적 전망**2023년만큼 빼어난 수준은 아니지만 상반기 대비 하반기 회복세 전망**

코윈테크의 2025년 매출과 영업이익은 2,517억 원, 117억 원으로 전망한다. 2023년 당시의 빼어난 실적(매출 3,360억 원, 영업이익 228억 원)에 미치지는 못해서 아쉽지만, 글로벌 배터리사로부터 Turn-key 수주 확보와 북미 및 유럽 ESS 시장 중심 공략, 스마트팩토리 Turn-key 구축에 대한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첨단 소재, 반도체, 자동차 등 빅테크 산업 중심의 수주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국내 대기업 그룹 계열사 기반의 사업 협력 및 영업 범위 확장도 긍정적 요소다. 최근 수주 호조세를 기업 측에서 적극적으로 시장과 소통하고 있으며, 로보틱스 관련 R&D 센터를 동탄시로 이전·확장하는 등 미래 성장 기반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하반기 수주는 기존 수주 대비 매출로 빠르게 시현될 가능성이 높아 상반기 실적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주 규모와 시기에 따라서는 2,000억 원 후반 수준의 매출을 전망할 수도 있으나, 상반기 실적이 부진했다는 점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추정하여 매출은 2,517억 원으로 전망한다.

매출 및 영업이익 추이						(단위: 십억 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F
매출액	454	1,063	2,012	3,360	2,444	2,517
YoY 성장률	-50.2	134.5	89.1	67.0	-27.3	3.0
영업이익	-30	44	8	3	15	117
영업이익률	-4.25	4.3	0.7	0.3	1.3	4.6
YoY 성장률	적자전환	흑자전환	-81.6	-62.3	404.9	249.5

자료: 코원테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Valuation

■ 2차전지 장비 공급사 밸류에이션은 2023년 높은 수준이었다가 2024년부터 낮아진 상황

스웨덴의 이차전지 회사

노스볼트의 파산 선언,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는 캐즘 등 부정적

뉴스가 많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차전지 장비 투자가 보수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코원테크의 전통적인 본업은 자동화 장비인데, 주식시장에서는 2차전지 전문 장비사로 꼽히고 있다. 아무래도 2차전지 고객사들이 코원테크의 자동화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했기 때문이다. 2차전지 장비 공급사들은 2023년에 P/E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았는데 이유는 2022년 8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발효로 인한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과 북미 현지 배터리 공장 증설에 대한 기대감 덕분이다. 또한 주요 양극재 업체의 장기간 대규모 수주 계약과 IRA 발효를 전후해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대규모 북미 현지 배터리 공장 증설 발표, 그리고 양극재 중심으로 소재 밸류체인들의 대규모 캐파 증설 선언이 이어졌다. IRA는 전기차 배터리 제작 시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부품/핵심광물을 사용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으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위한 에너지 자립이 핵심이었다.

2차전지 장비사들의 밸류에이션은 2024년부터 낮아졌다. 2023년 장비 수주 감소 때문이다. 또한, 2025년 추정 실적 또는 컨센서스 기준으로도 밸류에이션이 낮은데 이는 이차전지 캐즘과 전방 수요의 불안감 등 때문에 과거에 높았던 밸류에이션에 대한 디레이팅(derating)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ESS(에너지저장장치: 저장이 어렵고 사용 후 없어져버리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관리하는 시스템) 수요 중심으로 자본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나 이차전지 소재 공급사 또는 이차전지 셀/모듈 공급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크고 이차전지 장비사의 리레이팅을 이끌 수준까지는 아니다.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 스웨덴의 이차전지 회사 노스볼트의 파산 선언,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는 캐즘 현상 등 부정적 뉴스가 많았기 때문이다.

동종 업종 밸류에이션

(단위: 시가총액과 매출과 영업이익은 십억 원 기준, 주가는 각국 통화 기준, P/E는 배 기준)

자수 및 기업명	국가	연관성	주가	시가총액	매출			영업이익			P/E			
					2023	2024	2025F	2023	2024	2025F	2023	2024	2025F	
코원테크	한국	2차전지 장비	12,620	145	336	244	252	23	4	12	25.1	9.2	10.1	
에스에프에이	한국	2차전지 장비	22,350	803	1,860	2,045	1,781	89	-48	138	27.3	N/A	10.1	
원익피엔씨	한국	2차전지 장비	2,805	133	307	295	N/A	3	-49	N/A	N/A	N/A	N/A	
피엔티	한국	2차전지 장비	40,400	959	545	1,035	868	77	163	126	18.0	6.9	11.0	
평균												6.9	10.5	
Fanuc	일본	산업용 로봇	4,426	40,781	7,479	7,290	7,671	1,335	1,443	1,594	29.8	25.8	26.1	
Teradyne	미국/덴마크	협동 로봇		117	25,817	3,471	3,844	4,005	650	809	788	39.7	37.9	37.1
Symbotic Class A	미국	물류 로봇	46	37,443	1,547	2,405	3,091	-293	-157	-139	N/A	N/A	186.4	
평균												31.9	83.2	
Tennant	미국	청소로봇(AMR)	83	2,126	1,613	1,754	1,733	180	156	162	15.9	18.6	14.5	
Microvision	미국	라이다센서(AMR)	1	451	9	6	9	-115	-117	-77	N/A	N/A	N/A	
Rockwell Automation	미국	플랫폼(AMR)	350	54,549	11,908	11,114	11,381	2,115	1,478	1,923	23.9	32.4	35.1	
Analog Devices	미국	반도체(AMR)	254	173,562	16,044	12,683	15,050	4,985	2,735	6,273	24.0	68.0	32.8	
Amazon Com	미국	키바로보틱스(AMR)	228	3,370,040	745,560	869,560	982,925	47,801	93,495	113,351	52.4	39.7	34.2	
평균												39.7	24.8	

주: 코원테크 실적은 한국IR협의회 추정치, 그 외 기업들의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 참고, 주가는 8월 25일 종가 기준

자료: FnGuide, ChatGPT, Claude AI, Perplexity,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Fanuc, Teradyne, Symbotic 등 전통적인 로보틱스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매우 높은 편

해외 로보틱스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고려할 때,
코윈테크가 AMR 사업에서
성과를 보이기 시작한다면
기준 이차전지 장비 중심의
밸류에이션 10.1배에서
상당한 리레이팅 여지가 있을 것

코윈테크가 AMR을 중심으로 로보틱스 사업을 확장한다는 관점에서 향후에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가늠해보자. 먼저 로보틱스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제품을 공급해온 Fanuc, Teradyne, Symbotic은 2025년 기준 P/E 밸류에이션이 각각 26.1배, 37.1배, 186.4배를 기록하고 있다.

Fanuc의 경우 일본의 대표적인 산업용 로봇 전문기업으로서 안정적인 수익성을 바탕으로 26.1배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으며, 미국의 반도체 테스트 장비 전문업체 Teradyne은 지난 몇 년간 유럽 지역의 로봇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인수해왔다. 2015년 덴마크 오덴세의 협동로봇 전문기업 유니버설 로봇(Universal Robots)을 인수하고, 2018년에는 모바일로봇 기업 MIR을 1억 4800만 달러에 인수하는 등 로봇 포트폴리오를 확장하여 37.1배의 P/E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창고 자동화 로봇 솔루션을 제공하는 Symbotic이 186.4배라는 매우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 것이다. Symbotic은 2022년 6월 SPAC 합병을 통해 상장한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은 기업으로, 적자에서 흑자 전환 가시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의 높은 성장 기대감을 받고 있다. 실제로 2023년 7월에는 소프트뱅크그룹과 함께 총 75억 달러 규모의 창고자동화 서비스 합작법인 GreenBox를 설립하고, 6년간 75억 달러의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 규모를 대폭 확장하고 있다. Symbotic의 AI 기반 로봇 시스템은 월마트, 알버트슨, C&S 홀세일 그로서스 등 대형 유통업체에서 99.9999% 정확도로 2,600개 이상의 매장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AMR과 같은 차세대 로보틱스 기술에 대한 시장의 높은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해외 로보틱스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고려할 때, 코윈테크가 AMR 사업에서 조금 더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기 시작한다면 기준 이차전지 장비 중심의 밸류에이션 10.1배에서 상당한 리레이팅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는 AMR 사업의 매출 기여도와 수익성, 그리고 시장에서의 기술 경쟁력 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 AMR 분야에서 응용처 확대하며 존재감을 나타내는 관련 기업들의 밸류에이션도 참고 가능

코윈테크가 AMR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다면,
해외 AMR 관련 기업들의
평균 밸류에이션 수준까지
상당한 리레이팅 여지가 있을 것

마지막으로 AMR 분야에서 존재감을 나타내는 관련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살펴보자. 가장 흥미로운 사례는 155년 역사의 청소장비 전문업체 테넌트 컴퍼니(Tennant)다. 테넌트는 기존 청소장비에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 ROVR 시리즈 AMR을 개발하여 2025년 2분기 기준 AMR 매출이 전체 기업 매출의 6%를 차지하고 누적 배치 대수가 10,000대를 돌파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테넌트는 2025년 기준 P/E 14.5배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 한편 라이다 센서 전문업체 마이크로비전(Microvision)은 AGV/AMR용 3D 라이다 시장에서의 성장 기대감으로 현재 적자 상황임에도 상당한 시장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2025년 하반기와 2026년 상당한 매출을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산업 자동화 분야의 글로벌 리더들도 AMR 시장에서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록웰 오토메이션(Rockwell Automation)은 최근 분기의 전자상거래 및 창고 자동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으며, Clearpath AMR 플랫폼이 2분기 연속 두 자리 수 성장을 기록하여 35.1배의 P/E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 아날로그 디바이시스(Analog Devices)는 산업 자동화 사업에서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며 최첨단 AMR에 포함되는 자사 부품 가치가 대당 수천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고, 32.8배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 심지어 아마존(Amazon)도 물류센터 자동화와 AMR 기술 도입으로 34.2배의 밸류에이션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AMR 관련 기업들의 P/E 밸류에이션은 14.5배(테넌트)에서 35.1배(록웰 오토메이션) 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30배 이상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테넌트처럼 전통적인 제조업체가 기존 사업 기반을 활용해 AMR 기술을 접목했을 때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코윈테크 역시 이차전지 장비 분야에서 축적한 정밀 제조 기술력과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AMR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테넌트와 유사한 전략적 접근을 보이고 있다. 현재 10.1배의 P/E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코윈테크가 AMR 사업에서 대규모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다면, 해외 AMR 관련 기업들의 평균 밸류에이션 수준까지 상당한 리레이팅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리스크 요인

■ AMR 신사업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단기 실적 기여도 한계와 ROE 개선 지연 우려 상존

AMR 신사업의 제한적 매출

기여도와 전사적 ROE 개선의 한계

코윈테크의 주요 리스크 요인 중 첫 번째는 AMR 신사업의 제한적인 매출 기여도이다. AMR 사업은 2020년부터 소규모 매출에서 시작해서 연간 기준 몇 백억 원 단위까지 유의미하게 증가했으나, 전사 기준 매출 비중은 아직 제한적인 수준(10~15%)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AMR 신사업이 수익성 개선을 통해 자기자본 중 이익잉여금에 유의미하게 기여하여 전사적인 ROE(자기자본이익률: 기업이 자기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해 이익을 창출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개선을 논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다. 여전히 기존 이차전지 장비 사업의 실적 비중이 큰 구조를 보이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AMR 사업의 성장세가 가파르더라도 전체 기업의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차전지 장비 업종의 현재 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AMR 신사업만으로 전사적 성장 동력을 충분히 보완하기에는 아직 규모 면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다.

신규 사업 매출 확대 속도의

한계와 수익성 개선 지연 리스크

두 번째 리스크는 신규 사업의 실적 기여 속도가 예상보다 완만할 가능성이다. AMR 시장 자체는 성장성이 확실하지만, 실제 매출로 전환되는 속도가 빠르다 하더라도 AMR만으로 매출이 1,000억 원 이상을 달성하기에는 아직 시기상 이른 상황이다. 이는 AMR 시장의 특성상 고객별 맞춤형 솔루션 개발이 필요하고, 도입 결정 과정이 복잡하며, 실제 납품까지의 리드타임이 상당히 길기 때문이다. 또한 AMR 사업은 대량 생산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기술력 축적이 필요하며, 경쟁이 심화되면서 마진율 확보도 쉽지 않은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ROE 개선 효과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시점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단기 투자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욱이 AMR 기술 자체의 빠른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없이는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도 수익성 개선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존 사업 불확실성 존재.

다만, 장기 성장 잠재력은 유효

세 번째로는 기존 주력 사업인 이차전지 장비 분야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글로벌 이차전지 캐즘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명확하지 않고, ESS 시장의 성장세가 예상만큼 빠르게 나타나지 않을 경우 전체적인 사업 포트폴리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코윈테크는 2020년 이전 이차전지가 시장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할 때에도 성실하게 꾸준히 이차전지 자동화 장비 사업을 전개해온 검증된 기업이다. 현재도 이차전지 캐즘 극복 및 ESS 분야의 장비 수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관성 있는 사업 철학과 기술력 축적은 AMR 신사업에서도 동일하게 발휘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록 신규 사업의 실적 기여 속도가 다소 완만하고 단기적인 ROE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차근차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코윈테크만의 차별화된 경쟁력과 미래 가치 창출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다.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F
매출액	1,063	2,012	3,360	2,444	2,517
증가율(%)	134.5	89.1	67.0	-27.3	3.0
매출원가	871	1,675	2,828	2,055	2,033
매출원가율(%)	81.9	83.3	84.2	84.1	80.8
매출총이익	192	337	532	388	484
매출이익률(%)	18.1	16.8	15.8	15.9	19.2
판매관리비	126	189	304	352	367
판관비율(%)	11.9	9.4	9.0	14.4	14.6
EBITDA	87	186	285	94	188
EBITDA 이익률(%)	8.2	9.2	8.5	3.8	7.5
증가율(%)	511.7	114.2	53.6	-67.0	99.4
영업이익	66	148	228	36	117
영업이익률(%)	6.2	7.3	6.8	1.5	4.6
증가율(%)	952.6	123.4	54.4	-84.2	223.7
영업외손익	18	-74	21	53	-36
금융수익	35	65	163	217	112
금융비용	12	138	105	184	169
기타영업외손익	-4	-0	-36	21	21
총속/관계기업관련손익	0	2	5	8	13
세전계속사업이익	84	76	255	97	93
증가율(%)	317.6	-9.5	235.2	-62.0	-4.0
법인세비용	11	-0	31	-13	-5
계속사업이익	74	76	224	110	98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74	76	224	110	98
당기순이익률(%)	6.9	3.8	6.7	4.5	3.9
증가율(%)	188.8	3.8	193.8	-51.0	-11.2
자배주주지분 순이익	56	26	118	162	144

재무상태표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F
유동자산	1,202	2,516	3,352	2,804	2,859
현금성자산	420	375	744	432	419
단기투자자산	145	892	978	311	317
매출채권	333	423	932	1,359	1,399
재고자산	113	375	204	223	229
기타유동자산	190	450	493	479	494
비유동자산	662	914	1,314	1,580	1,629
유형자산	429	635	911	1,094	1,145
무형자산	163	157	155	157	153
투자자산	60	112	229	293	296
기타비유동자산	10	10	19	36	35
자산총계	1,864	3,431	4,666	4,384	4,488
유동부채	538	1,113	1,461	1,162	1,190
단기차입금	284	282	175	160	160
매입채무	71	112	230	229	236
기타유동부채	183	719	1,056	773	794
비유동부채	144	409	439	414	414
사채	52	225	353	360	360
장기차입금	54	101	24	20	20
기타비유동부채	38	83	62	34	34
부채총계	682	1,523	1,900	1,575	1,605
자본주주지분	1,044	1,296	1,631	1,768	1,889
자본금	47	49	53	56	57
자본잉여금	713	949	1,134	1,138	1,138
자본조정 등	-70	-72	-33	-41	-41
기타포괄이익누계액	-1	0	-1	5	5
이익잉여금	355	371	478	611	730
자본총계	1,182	1,908	2,766	2,809	2,884

현금흐름표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2	31	276	-347	65
당기순이익	74	76	224	110	98
유형자산 상각비	12	28	47	54	66
무형자산 상각비	8	10	11	4	5
외환손익	2	35	19	2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116	-187	-67	-559	-96
기타	18	69	42	42	-8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21	-1,014	-268	288	-135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17	-56	-144	195	5
유형자산의 감소	1	1	18	0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95	-233	-256	-209	-118
기타	98	-726	114	302	-22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214	967	357	-263	-21
차입금의 증가(감소)	140	64	-149	-70	1
사채의증가(감소)	95	330	344	-81	0
자본의 증가	0	0	0	0	0
배당금	-18	-9	-9	-46	-22
기타	-3	582	171	-66	0
기타현금흐름	3	-29	4	10	79
현금의증가(감소)	235	-45	369	-312	-13
기초현금	185	420	375	744	432
기말현금	420	375	744	432	419

주요투자지표

	2021	2022	2023	2024	2025F
P/E(배)	54.5	88.0	25.1	9.2	10.1
P/B(배)	2.9	1.8	1.9	0.8	0.8
P/S(배)	2.9	1.1	0.9	0.6	0.6
EV/EBITDA(배)	34.0	12.9	11.1	25.2	12.4
배당수익률(%)	0.4	0.5	0.9	1.6	1.7
EPS(원)	525	247	1,086	1,415	1,253
BPS(원)	9,822	12,190	14,433	15,417	16,007
SPS(원)	10,005	18,923	30,882	21,357	21,947
DPS(원)	89	92	236	194	194
수익성(%)					
ROE	5.5	2.2	8.1	9.5	7.9
ROA	4.7	2.9	5.5	2.4	2.2
ROIC	8.3	12.5	16.5	-0.4	5.0
안정성(%)					
유동비율	223.2	226.0	229.4	241.4	240.2
부채비율	57.7	79.8	68.7	56.1	55.6
순차입금비율	-11.9	-24.5	-35.2	-4.6	-4.2
이자보상배율	12.1	6.0	5.2	0.9	3.4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0.7	0.8	0.8	0.5	0.6
매출채권회전율	4.3	5.3	5.0	2.1	1.8
재고자산회전율	11.1	8.3	11.6	11.4	11.1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코원테크	X	X	X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5.08.29	코원테크-이차전지 자동화 장비사에서 AMR 기업으로 발돋움
2022.03.31	코원테크-2차전지 자동화설비 전문 기업. 2022년 담보된 성장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입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저작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小中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小中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